

# NAS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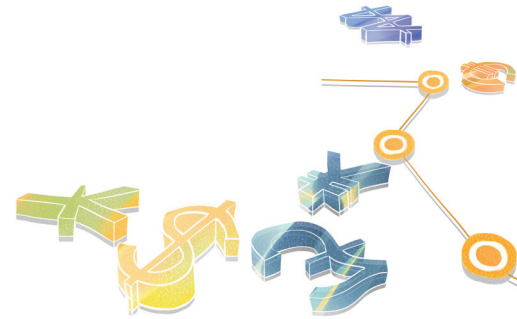
News

Letter

# 12

Volume.

[www.nasc.or.kr](http://www.nasc.or.kr)



국가회계기준센터 동향

국가회계제도 동향

외국회계제도 동향

오피니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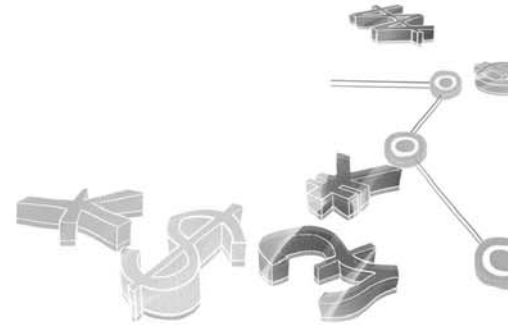
공지사항

NASC 기획재정부위탁  
국가회계기준센터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enter

국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발생주의의 도입과 국가회계제도의 선진화  
국가회계기준센터가 선도합니다.

[www.nasc.or.kr](http://www.nasc.or.kr)





## INDEX

국가회계기준센터 동향

국가회계제도 동향

외국회계제도 동향

오피니언

공지사항

# 국가회계기준센터 동향

김 상 노 부장 \_ 국가회계기준센터 평가분석부장  
Tel\_02,3149,7551 / e-mail\_ alcaz@kicpa.or.kr

## 01 제13회 OECD 발생주의 국가회계 심포지엄 참석 (3.7 ~ 8)



기획재정부(재무회계팀 장문선 과장 외 1명)와 국가회계기준센터(정지웅 연구원)는 3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3회 OECD 발생주의 국가회계 심포지엄(13th Annual OECD Public Sector Accruals Symposium)」에 참석하였다. 주요 국제기구 및 OECD 국가들의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분야에 대한 현황보고 및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회계 제도의 발전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오피니언 - 「제13회 OECD 발생주의 국가회계 심포지엄」 참석 후기 참조)

## 02 서울대 주최 정책지식포럼 참석 (3.12)

국가회계기준센터 김상노 평가분석 부장은 3월 12일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 지식센터에서 주최하는 정책지식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이날 사회는 김동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발표는 기획재정부 장문선 과장, 토론은 한경대학교 이원희 교수가 맡아주셨다. 이날 발표를 맡은 기획재정부 장문선 과장은 정부부문에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 취지와 현재까지 달성한 성과,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등을 발표하였다. 특히 정부부문의 회계투명성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다. 이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상노 평가분석부장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장기재정 전망보고서의 도입, 부처별 공시, 반기 결산 수행 등을 제시하였다.

## 03 ADB 공공부문회계 아시아지역 포럼 참석 (3.19 ~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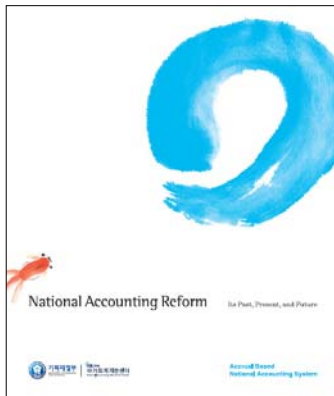


기획재정부(재무회계팀 장문선 과장)와 국가회계기준센터(평가분석부장 김상노 부장의 1명)는 2013년 3월 19일과 20일 양일간에 걸쳐 태국 방콕에서 열린 「ADB 공공부문회계 아시아지역 포럼」에 참석하여 발생주의 국가회계 도입과 관련한 주요 이슈들을 논의하였다. (오피니언 - 「ADB 공공부문회계 아시아지역 포럼」 참석 후기 참조)

## 04 재정전문가 네트워크 정책세미나 참석 (3.27)

국가회계기준센터 김상노 평가분석 부장은 3월 27일(수)에 한국정부회계학회와 한국조세연구원(재정전문가 네트워크-정부회계 분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정책세미나에 종합토론자로 참석하였다. 본 정책 세미나는 국가, 지자체, 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위한 부채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토론에 참석한 김상노 평가분석부장은 국가의 국가재정법 상 채무, 재무제표 상 부채, GFS기준에 따른 일반정부부문 부채 등 여러 가지 유형별로 정부가 부채관리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였다. 또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가 도입된 만큼 부채 측면만을 분석하지 않고, 자산을 같이 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국가의 부채 수준의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규제화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 05 국가회계제도 영문 홍보 브로슈어 발간 (3월)



국가회계기준센터는 3월 12일에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자료를 반영한 국가회계제도 영문 홍보 브로슈어를 발간하였다. 영문 브로슈어는 국제행사 시 우리나라 국가회계제도의 효과적인 홍보를 목적으로 국가회계제도 개혁 배경 및 기대효과, 국가 재무제표 주요 내용 등을 영문으로 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회계기준센터 홈페이지 발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가회계제도 동향



한 소 영 선임연구원\_ 국가회계기준센터 평가분석부 기준팀  
Tel\_02,3149,7554 / e-mail\_ hsy2010@kicpa.or.kr

## 01 제11차, 제12차 국가회계기준 자문위원회 개최 (1.18, 3.12)



국가회계기준센터 업무의 전문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센터 내 자문기구인 국가회계기준자문위원회(위원장 전중열, 서울과학기술대학 경영학과교수)가 1월 18일과 3월 12일에 국가회계기준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11차 자문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국가회계기준센터 사업수행계획” 및 “정부조직개편 관련 회계처리 방안”의 2개 안건을 보고하고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12차 자문위원회에서는 “벌금수익인식 적정성 검토 및 회계기준 개정방안” 및 “국가회계기준 상부채 인식기준 개정방안”의 안건을 보고하고 쟁점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02 국가회계제도 심의위원회 소위원회 (2.20)

국가회계기준센터는 2월 20일(수) 국가회계처리지침 개정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회계제도 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석하였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회계처리지침(안)”을 보고하고 관련 쟁점사항을 논의하였다.

본 지침(안)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이 일어난 경우 수행하는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공시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논의된 쟁점사항을 반영하여 추후 국가회계제도 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 외국회계제도 동향



이혜진 연구원\_국가회계기준센터 평가분석부 공공기관팀  
Tel\_02.3149.7566 / e-mail\_ whateverhj@kicpa.or.kr

## 01 FASAB, 자산손상 관련 기준 제정

미국 연방회계기준자문위원회(FASAB: Federal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Board)의 톰 앨런(Tom Allen) 위원장은 지난 1월 3일, 연방정부재무회계기준서(Statement of Federal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제44호 ‘일반유형자산 손상의 회계처리’가 제정되었음을 밝혔다.

동 기준서 제44호에 따라 보고실체는 일반유형자산의 손상 효과를 재무제표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재무제표 이용자는 발생한 손상의 원가, 보고실체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손상 이후 제공된 서비스의 원가를 구분할 수 있다. 기준서 제44호에 따라 2015회계연도부터 모든 보고실체는 손상에 대해 유사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므로 실제 간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향상된다. 부처 혹은 기관에서 손상자산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명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동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행정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톰 앨런 위원장에 따르면 “FASAB는 다른 공공부문 회계기준 제정기관 및 민·관전문가의 의견을 상당부분 고려했다. 기준서 제44호는 중요한 손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불필요한 노력 없이도 필요한 재무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 FASAB, News Release

[http://www.fasab.gov/pdf/files/nr\\_asset\\_impairment\\_jan\\_03\\_2013.pdf](http://www.fasab.gov/pdf/files/nr_asset_impairment_jan_03_2013.pdf)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지난 3월 6일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국제공공회계기준(IPSAS: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이 “향후 EU 통합 공공회계기준의 명백한 참고기준(indisputable reference)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동 보고서는 발생주의에 기초한 정부회계처리의 통일화가 공공부문 재무보고의 투명성, 회계 책임성 및 비교가능성을 제고한다고 강조했다. 동 보고서의 부속서류로 발표된 실무연구자료는 IPSAS의 장점에 대해 논의하면서, “IPSAS와 같은 수준 높은 발생주의 기준을 통해 투명성이 개선되면 자본시장 참여자에 보다 많은 정보가 제공되며, 이러한 자본시장에서 정부의 재정활동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중요해진다”고 언급했다.

EC 보고서는 현 금융위기를 통해 금융안정성 확보가 모든 EU 국가의 공통적인 과제가임이 밝혀졌으며, “모든 EU 국가는 막대한 정부자산 및 부채를 보유하므로, 각 정부는 자산 및 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의회의원, 투자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반드시 회계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공공회계기준위원회(IPSASB: IPSAS Board)의 안드레아 버그먼(Andreas Bergmann) 위원장은 현행 IPSAS의 절반 정도가 수정이 거의 없이 유럽공공회계기준(EPSAS: European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제안한 EC 보고서를 크게 환영했다.

현재 EU 회원국 중 15개국이 IPSAS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중 9개국은 IPSAS에 기반하거나 부합하는 국가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버그먼 위원장은 “EU 회원국의 발생주의 회계제도 채택은 정부의 투명성 제고와 공익 실현을 위한 역사적인 발걸음이 될 것이다. EPSAS가 IPSAS처럼 수준 높은 회계기준이 되려면 엄격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 점에서 IPSASB는 EPSAS를 도입, 채택 및 적용하는 EU의 공공부문 회계당국에 아낌없는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출처 : IFAC, NEWS & EVENTS

<http://www.ifac.org/news-events/2013-03/ec-report-calls-ipsass-indisputable-reference-accrual-based-public-sector-standards>

영국공공재무회계협회(CIPFA: Chartered Institute of Public Finance and Accountancy)는 유럽연합의 IPSAS 도입 적정성에 대해 평가한 EC 산하기관인 유럽통계청(Eurostat) 보고서를 환영했다.

동 보고서는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지지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G20 회의에서 공공부문 재무 보고의 투명성 및 비교가능성에 주목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동 보고서에서 IPSAS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유일한 공공부문 회계기준’으로 그 지위를 인정받고 있지만, 회계기준의 일관성 있는 적용을 위해서는 보다 상세하고 구속력을 가진 기준, 즉 유럽공공회계기준(EPSAS)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동 보고서는 EPSAS 개발에 정치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했으나, 기준 제정, 이행방식 및 이행시기 등 핵심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에 부쳤다.

CIPFA의 이안 카루터(Ian Carruthers) 정책 및 기술이사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전 세계는 글로벌 금융·국채위기를 통해 재정관리가 부실할 경우 얼마나 참혹한 결과가 발생하는지 확인했다. 동시에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조치는 신속해야 한다는 교훈도 얻었다. 유럽통계청이 권고한대로 유럽 전역의 중앙 및 지방정부가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일관되게 채택한다면 이는 유럽의 재정관리 강화에 획기적인 첫걸음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지역에는 선구자적인 역할이 될 것이다.

CIPFA는 유럽통합회계기준 제정에 있어서 IPSAS가 ‘명백한 참고기준’으로 언급한 유럽통계청의 보고서를 환영한다. 그러나 향후 공공재정정보의 국제적 비교가능성은 유럽통계청이 IPSAS를 얼마나 반영하는가에 달려있다”

출처 : CIPFA, About CIPFA

<http://www.cipfa.org/About-CIPFA/Press-Office/latest-press-releases/CIPFA-responds-to-Eurostat-IPSAS-report>

국제공공회계기준위원회(IPSASB)는 “공공부문의 일반목적 재무보고에 적용되는 개념체계(Conceptual Framework for General Purpose Financial Reporting by Public Sector Entities)”의 1단계 내용을 확정하여 공표하였다. 이 개념체계는 총 4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제1장 ‘개념체계의 역할 및 지위’, 제2장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의 목적 및 이용자’, 제3장 ‘질적 특성’, 제4장 ‘보고실체’로 구성된다.

개념체계는 향후 IPSAS 및 실무지침(RPG: Recommended Practice Guidelines) 제정의 기초가 될 예정이다.

안드레아 버그먼(Andreas Bergmann) IPSASB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에 개념체계를 발행한 것은 IPSASB를 넘어 전 세계의 공공부문 회계기준 제정에 획기적인 사건이다. 이번에 발행된 개념체계는 일관적이고 유용성 있는 IPSAS 및 실무지침(RPG)을 제정하기 위한 IPSASB의 지속적인 노력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며, 향후 발행될 나머지 단계의 개념체계 또한 이번 첫 단계를 기초로 하게 될 것이다. 또한 본 개념체계를 통해 재무제표 작성자는 IPSAS 및 실무지침(RPG)에서 다루지 않는 재무보고 이슈에 대한 지침을 제공받을 것이다.”

이번 첫 단계의 개념체계는 IPSAS 및 실무지침(RPG) 제정과정에서 개념체계의 역할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 실체가 발행한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의 일차적 이용자는 서비스 수혜자와 자원 제공자임을 밝히면서, 공공부문 재무보고 목적이 보고서 이용자에게 회계책임성 확보 및 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을 명시한다. 그리고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에 포함되는 정보의 질적 특성과 제약사항, 그리고 공공부문 보고실체의 주요 특징을 명확히 한다.

재무제표에 표시된 정보가 재무보고의 핵심이며, 또한 앞으로도 IPSAS 및 실무지침(RPG)의 핵심 사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 및 기타 공공부문의 일차적 목표는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기 때문에 재무제표만으로는 보고실체의 성과를 부분적으로밖에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개념체계는 회계책임성 확보와 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대한 이용자 수요의 충족이라는 관점에서 공공실체 재무보고의 범위가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정보의 범위보다 포괄적이라고 밝힌다. 예를 들어,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에는 서비스 목표 달성도, 승인된 예산안의 이행수준, 미래의 서비스 활동, 목적 및 필요자원에 대한 예상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재무제표 구성요소, 즉 기본요소의 정의, 인식, 측정 및 표시에 관해 설명하는 2단계의 개념 체계가 현재 추가로 개발 중에 있다. 완성되는 대로 전체 개념체계에 추가된다.

IPSASB는 최근 회의에서 IPSAS 및 기타 구속력 없는 지침을 검토한 후, 적절한 절차를 거쳐 현행 IPSAS와 개념체계 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결정했다. 개념체계 최초 4개 개념서의 제정으로 인한 IPSAS 제1호 '재무제표의 표시'에 제시된 질적 특성의 적용 철회방법 및 시기, 기타 IPSAS 변경사항 등은 2013년에 확정되어 공개될 것이다.

출처 : IFAC, NEWS & EVENTS

<http://www.ifac.org/news-events/2013-01/ipsasb-publishes-first-chapters-public-sector-conceptual-framework>

05

## GASB, 정부(사업) 결합 및 폐지 관련 기준서 제정

미국 지방정부회계기준위원회(GASB: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지난 1월 8일, 미국 주·지방정부의 정부(사업) 결합 및 폐지에 따른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 개선에 대한 새로운 회계기준을 승인하였다. 정부(사업) 결합은 정부사업의 병합, 취합 및 이관을 포함하며, 정부사업 폐지는 다른 정부로의 이관 혹은 처분을 통해 발생한다.

병합은 법률상 별개의 정부기관 혹은 정부사업의 반대급부 없는 결합을 의미하며, 취합은 상당한 반대급부를 통해 어떤 정부가 다른 정부 및 정부사업을 흡수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정부사업이 폐지되면 해당 정부사업은 소멸된다.

GASB 기준서 제69호 '정부(사업) 결합 및 폐지'는 다음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 정부 결합이 병합, 취합 및 이관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결정
- 장부가액(일반적으로 결합 전 재무제표 상 금액)을 이용하여 병합 및 이관을 통해 결합된 자산, 부채, 이연자원유입 및 유출 등을 측정
- 취합된 자산, 부채, 이연자원유입 및 유출의 가치를 취합 시 취득가치에 따라 측정
- 이관 혹은 처분된 정부사업의 폐지 회계처리

로버트 앳모어(Robert H. Attmore) GASB 위원장은 “정부의 특수한 회계환경에 맞는 이번 기준서의 제정을 통해 주·지방정부간 병합 및 취합에 대한 회계처리가 개선될 것이다. 전통적으로 정부는 병합 및 취합 시 민간부문 회계처리지침을 준용하여 회계처리했다. 하지만 민간 회계처리지침은 정부부문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주식 소유구조 및 소유주 이해관계 등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정부부문에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많았다”고 언급했다.

출처 : GASB News Center

[http://www.gasb.org/cs/ContentServer?c=GASBContent\\_C&pagename=GASB%2FGASBContent\\_C%2FGASBNewsPage&cid=1176160613718](http://www.gasb.org/cs/ContentServer?c=GASBContent_C&pagename=GASB%2FGASBContent_C%2FGASBNewsPage&cid=1176160613718)

# 오피니언



## 01 「ADB 공공부문회계 아시아지역 포럼」 참석 후기

김 상 노 부장\_평가분석부장

Tel\_02,3149,7551 / e-mail\_ alcaz@kicpa.or.kr

기획재정부(재무회계팀 장문선 과장 외 3명)는 2013년 3월 19일과 20일 양일간에 걸쳐 태국 방콕에서 열린 「ADB 공공부문회계 아시아지역 포럼」에 참석하여 발생주의 국가회계 도입과 관련한 주요 이슈들을 논의하였다. 금번 포럼은 IPSASB 의장(Chairman, Andreas Bergmann)을 비롯해 총 21개국 및 4개 기관에서 57인의 재정전문가가 참석하여 다양한 견해와 지식들이 공유된 자리였다.

포럼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은 국제공공회계기준(IPSAS: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현황 및 향후 계획, ADB 개발도상회원국을 대상으로 발생주의 회계 도입에 대한 각국의 사례였다. 특히 Survey 결과 발생주의를 도입하지 않은 ADB 개발도상회원국 중 15개국이 5년 이내에 발생주의 회계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답변하였고, 5년 이후 7개 국가가 도입 추진할 것으로 답변하는 등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은 국제적 추세임을 확인하였다.

한국은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사례 및 자체 개발하여 운영 중인 dBrain 시스템을 소개함으로써, 정부의 투명한 재정공개 의지와 재정건전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홍보하는 성과가 있었고,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대한 영문 홍보 브로셔와 2011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영문번역본을 참석자들에게 제공하여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한편 발생주의 회계를 먼저 도입하였던 국가들에서도 실질적인 활용 방법이나 유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도입을 추진하는 국가에서는 도입 추진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 지속적으로 既도입국가들에 유용성 등을 질문하는 상황이다. 한국은 향후 발생주의 활용 방법 및 유용성에 대한 사례 개발 및 국제사회에 발표함으로써 공공부문 개혁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금번 포럼을 계기로 아시아 태평양 국가에 모범사례를 제공하는 등 지역 연계강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한국은 발생주의 도입 당시 겪었던 장애요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Know-how를 축적하고 있어서 발생주의 회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많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로부터 관심과 질문을 받았다. 지속적으로 해당 국가들에게 발생주의 진행 상황을 알리고, 발생주의 회계 도입 시 축적된 Know-how나 인프라를 제공할 경우 한국의 위상제고에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 중앙일보 기사 참고(2013.3.26) 「우리나라 ‘발생주의 회계제도’, 亞 국가 주목」

## 02 「제13회 OECD 발생주의 국가회계 심포지엄」 참석 후기

정지웅 선임연구원\_국가회계기준센터 평가분석부 공공기관팀  
Tel\_02.3149.7568 / e-mail\_jwng113@kicpa.or.kr

기획재정부(재무회계팀 장문선 과장 외 3명)는 2013년 3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3회 OECD 발생주의 국가회계 심포지엄(13th Annual OECD Public Sector Accruals Symposium)」에 참가하였다. 동 심포지엄은 2001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주요 국가회계기준 제정기구 동향보고 및 OECD 회원국의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현황보고, 국가회계 관련 주요 이슈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고 있다.

심포지엄은 먼저 국제공공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등의 주요 제정기구의 현황보고로 시작하여, 국가별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추진 실적 보고로 이어졌다.

각 국가별 발생주의 국가회계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은 현재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조사 및 시범적용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을 비롯한 기타 발생주의 선진국들은 발생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공개 및 홍보 등을 통한 이용자 접근성 향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편, 발생주의 예산·결산제도 도입사례 및 국가회계의 IPSAS 도입여부에 대한 OECD 설문 결과 스웨덴, 핀란드 등 다수의 국가들이 현금주의 예산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IPSAS의 전면 도입에는 회의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럽연합통계청(Eurostat)의 EU 국가에 대한 IPSAS 도입 적

정성 평가 연구 수행 결과 현행 IPSAS를 전면 적용하기는 쉽지 않으며 향후 EU공공회계기준(EPSAS) 제정을 위한 참고기준이 될 수 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현재 국제공공회계기준위원회(IPSASB)는 IPSAS 계정체계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제정되는 IPSAS의 근본개념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IMF 및 Eurostat 등의 통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재정통계보고(GFS)와 IPSAS 발생주의 재무보고와의 정합화를 추진하고 있다.

금번 OECD 발생주의 국가회계 심포지엄에 참석함으로써 주요 국제기구 및 OECD 국가들의 최신 동향과 국제적 이슈 파악 등을 통해 우리나라 국가회계제도의 발전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IPSAS 도입에 대한 EU 차원의 연구, 재정통계보고(GFS)와 IPSAS 발생주의 재무보고와의 연계 프로젝트, 재정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정보공개 사례 등은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재정정책 수립 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이슈라 할 수 있다. 본 발생주의 심포지엄은 발생주의 관련 국제회의로서는 가장 공식적이고 규모 있는 자리로서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참석하여 외국정부 및 기관과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기회가 지속적으로 마련되기를 바란다.



# 공지사항

전 승 진\_행정팀

Tel\_02,3149,7560 / e-mail\_ sj80@kicpa.or.kr

## 뉴스레터 구독 신청 안내

정기적으로 뉴스레터 구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① 국가회계기준센터 홈페이지(www.nasc.or.kr)에 회원가입 또는 ② 02-3149-7560 ~ 1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회계기준센터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회계기준센터 홈페이지(www.nasc.or.kr)에는 국가회계 관련 뉴스, 발간자료, 기준 및 법령, 세미나 및 교육일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평소 국가회계에 관하여 궁금했던 사항을 질의할 수 있는 코너와 FAQ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뉴스레터, 정부회계저널, 알기 쉬운 국가회계기준 등의 발행물과 세미나자료, 연구보고 자료 등 국가회계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중이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국가회계 및 뉴스레터에 대한 의견 제안

국가회계제도 및 뉴스레터에 대한 의견을 국가회계기준센터 홈페이지의 [의견제안] 메뉴에서 접수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NASC

VISION

국가 재정부문에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정착

전략  
목표

발생주의 국가회계운영시스템 정비

국가회계기준의 충실한 이행 방안 마련

재무제표 공시자료 유용성 제고 방안 마련

체계적인 국가회계기준 실무해석 및 질의회신 수행

발생주의 재무정보 활용도 제고

원가정보의 성과지표와의 연계 및 예산에 환류를 위한 방안 마련

발생주의 재무정보를 활용한 체계적인 재정지표 개발

각 중앙관서별 결산보고서 분석 및 검토 자료 제공

국내외 회계환경변화 대응

외국정부회계제도(미국, 영국, IPSAS 등) 동향 분석 및 연구

공공부문(지방, 공공기관) 회계환경 동향 분석 및 연구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공감대 형성



국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발생주의의 도입과 국가회계제도의 선진화  
국가회계기준센터가 선도합니다.

**NASC** 기획재정부위탁  
국가회계기준센터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enter

| 위탁운영기관 | **KICPA** 한국공인회계사회  
THE KORE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100-740)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8 대우재단빌딩 8층 Tel\_ 02.3149.7560 Fax\_ 02.3149.7570 Homepage\_www.nasc.or.kr

2013년 3월 30일 발행